19. 근대 동아시아의 역사적 전개와 전쟁 2러일전쟁

현대 동아시아의 형성(2020s) 독습용 보조교재 & 과제

1. 시청 영상의 설명

이번 강의는 지난 회에 이어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러일전쟁에 관한 것으로, 청일전쟁에서 10년이 지나 열강의 동아시아 분할과 이권쟁탈이 더욱 노골화된 상황에서, 한반도와 요동반도를 무대로 하여, 아시아의 신흥강국으로 부상한 일본이어떻게 지역 질서를 바꾸어 가는 가를 살피고자 합니다. 20C 전반의중국・일본사에 대한 보조교재는 아직 배부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를 위한 예습이라 생각하고 시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차 역시 별도의 과제는 없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시청할 영상은 이하와 같습니다.

· 「한반도 운명의 격전 2편, 끝나지 않은 패권: 러일전쟁」(KBS역사저널 그날)

: 약 54분, KBS다큐, 2015.7.31일 방송

: https://www.youtube.com/watch?v=wa7REgu87ug

- · 일본 요코스카 소재 「미카사=笠 공원」
 - : 러일전쟁의 발발 이유, 일본의 승리 이유, 전쟁의 유산은?
- · 서울, 러일전쟁 발발 9년전(1895)
 - : 일본이 민비를 살해한 이유···친일세력 축출의 주도자란 인식
 - : 삼국간섭과 「왁신상담」・・・러시아를 가상적국으로 한 전쟁준비(군비확장)
 - : 고종의 「아관파천」과 일본견제・・・일본의 빗나간 예상
 - : 왜 러시아는 삼국간섭 이래 일본을 견제해 왔나?
 - →시베리아 횡단철도(군사/경제적 침투)의 한계와 부동항 확보
 - →한국의 「독립」이 중요 ① 드미트리 파블로프 (러시아 역사연구소 부소장)
 - :「아관파천」으로 외교적 수세에 몰린 일본→「돌파구」의 필요
 - →러시아와의 비밀협약이 담긴 문서(의정서)를 일부러 유출
 - →고종의 러시아에 대한 환멸(배신감)
- · 모스크바, 러일전쟁 발발 8년전(1896)
 - : 러일간 의정서의 내용과 작성경위

- 모스크바, 러일전쟁 발발 8년전(계속)
 - : 니콜라이2세의 대관식과 러일 비밀회담
 - →일본의 조선 분할지배 제의와 러시아의 거절
 - →절충의 결과로서의 의정서・・・동일규모의 러일군 한반도 주둔+중립지대 설치
 - →사실상 러일 양국의 「보호령」의미
- ·고종의 배신감과 「자주노선」 선택 (1897: 러일전쟁 발발 7년 전)
 - : 독립협회의 활동, 만민공동회와 외세의존 비판→러시아 재정/군사고문 철수
 - : but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는 존속X
 - → ① 구대열(이화여대 명예교수): 고종의 불신과 탄압(왕권약화)
- · 모스크바, 러일전쟁 발발 4년 전(1900)
 - : 왜 러시아는 고종의 자주노선에 반발하지 않고 순순히 철수했는가?
 - →중국문제에 집중, 시베리아 철도 완공 전 군사행동 자제
 - : 연합군의 의화단 진압과 러시아의 철군 거부 (부동항 확보의 기회)
 - →러시아의 만주점령→일본에겐 위기이자 기회

- •모스크바, 러일전쟁 발발 4년 전(계속)
 - : 이토 히로부미의 「만·한 교환론」 제시→러시아는 한국 중립화 제안
 - → `` 키릴 나자렌코(상트페테르부르그대 교수)
- 영일동맹으로의 길(러일전쟁 발발 3년 전)
 - : 일본의 신 전략···가츠라 타로의 「영일동맹론」 (i)하라다 케이이치
 - →영국 측이 먼저 동맹을 제안 (→일본의 「튕기기」전략)
- · 러일전쟁 발발 2년 전 (1902)
 - : 영일동맹 체결과 영국의 프랑스·독일 견제(=러시아에 충격)
 - : 러시아의 만주 철병 ①이안 니시(런던대 명예교수)
 -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준비 박차 (3년후 시베리아 철도 완공이란 위협)
- · 상트페테르부르그, 러일전쟁 발발 1년 전 (1903)
 - : 1차 만주철병 이후 러시아內 강경파 대두 (더 이상의 철병 거부)
 - → ① 드미트리 파블로프: 강경파의 일본 과소평가 (→오판)

- · 러일전쟁 발발 7개월 전 (1904)
 - : 일본의 대러 최종방침 확정→한국관련 러시아에 대한 양보는 X
 - →「개전외교」(개전의 대의명분 확보를 위한 외교)
- · 러일전쟁 발발 1달 전···러시아의 돌연한 「양보」표명과 일본의 묵살
 - : 러시아가 이런 소극적 자세를 보인 이유는? (=일본이 개전을 선택한 이유는?)
 - →실제 전쟁준비X ①키릴 나자렌코···러시아의 허점들
 - : 일본은 이런 허점을 공략
 - →얼마 안 남은 시베리아 철도 완공 이전에 개전&단기간 결착
 - →i)하라다 케이이치: 개전외교는 일본 국내외 여론용 명분쌓기
- ㆍ서울, 러일전쟁 발발 18일 전
 - : 전운의 고조와 고종의 대외중립선언···미국 제외 열강이 인정
 - : 미국은 왜 이런 태도를 보였나?
 - →他열강에 대한 미국의 동아시아 문호개방 선언→러시아의 만주 문호 폐쇄와 미국의 불만→일본을 통한 만주에서의 힘의 균형 추구

- 서울, 러일전쟁 발발 이틀 전
 - : 일본의 국교단절 선언, 해군출정명령(without선전포고→기습)
 - →단기간 승리를 위한 전술
 - : 고종은 여전히 외세의존적 중립선언이 유효할 것이라 낙관
 - →①구대열: 「중립」은 고종의 개인적 희망사항(무계획, 노력X)
 - : 일본군의 진해만 기습상륙(군사적 거점 확보)
- · 러일전쟁 발발 (1904년2월8일)
 - : 여순에서의 해상전→일본해군의 난관 봉착→러 해군의 여순농성, 위력적인 포대사격(시간끌기)→일본군의 여순항 봉쇄작전과 제물포항 기습
 - : 일본육군의 한반도 북상→중립선언의 유명무실화
 - →일본군의 궁궐점령과 한일의정서 강요(현지 물자조달과 개전명분 확보용)
 - → i)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 · 런던, 1904년···전쟁수행을 위한 일본의 경제적 대비
 - : 일본은행 부총재의 영ㆍ미 파견→전비조달을 위한 외채 모집

- · 런던, 1904년 (계속)
 - : 러시아도 상황은 동일→외채모집이 전쟁성패를 좌우
 - : 초기의 난항(일본승리 기대치 ↓)과 미국 유대계 자본의 「뜻밖의」 투자
 - : 일본육군의 승전과 러시아 공채의 인기급락
 - → i 이라마 요이치(군사전문가): 일본의 대외신용도 상승
 - : 지구전에 따른 일본해군의 사기저하→결국 일본육군의 승전이 여순함락의 유일한 방법→일본육군의 재편과 여순 공격
 - : 전황 역전을 위한 러시아 황제의 발틱함대 투입 결정
 - →영국의 방해와 발틱함대의 장거리 우회
 - : 일본육군의 「무모한」 여순 공략과 막대한 희생
 - →여순 점령과 러시아 여순 함대 궤멸(11월)→일본군의 서해 장악
 - →갈 곳 없는 발틱함대의 블라디보스톡 회항결정과 비극적 결말
 - →i)드미트리 파블로프
- · 상트페테르부르그, 1905년 1월
 - :「피의 일요일 사건」과 러시아의 내정혼란

- · 상트페테르부르그, 1905년 1월 (계속)
 - → ① 오오야마 미즈요(역사연구가): 일본군 정보기관의 암약
 - : 「동해(일본해)해전」(5월27일)···발틱함대의 궤멸과 전쟁 종결
 - →일본이 「열강」의 반열에 오름
- · 포츠머스, 1905년 8월
 - : 러일 대표단과 미국의 강화중재···대립과 절충
 - →일본의 배상금 포기와 한국에 대한 「보호권」 보장
 - →but 열강이 인식한 「보호」는 강제병합처럼 일본에 의한 독점적 보호X
- · 서울, 1905년 11월
 - : 을사늑약 체결(외교권 장악)과 통감부 설치(=보호국化)
 - → ① 와다 하루키: 전후 러시아의 세력 만회를 사전저지
 - : 러일전후 미국은 고종의 밀서(=조약무효)를 묵살, 왜?

- ·도쿄, 1905년 4월
 - : 일본의 對한국방침 결정(보호국). But 열강의 승인이 필요
 - →일본은 먼저 미국의 승인을 얻기로 결정. 설득작업
 - → ①제임스 브래들리(역사소설가)
- · 샌프란시스코, 1905년 7월···미국의 아시아행 외교사절단 파견
 - : 가츠라-태프트 밀약 체결
- · 런던, 1905년 8월
 - : 일본의 대영교섭···영일동맹 조문 중 문제사항 수정 목적
 - →영국은 대신 동맹의 적용지역을 인도까지 확대 요구 ①제임스 브래들리
 - : 영 · 미의 승인 확보와 한반도에서의 일본 견제세력 소멸
- · 한일병합과 식민지 통치의 시작(1910년8월)···동아시아의 「평화」 소멸
 - : 일본의 군사적 약욕과 끊임 없는 전쟁···중일전쟁(1937), 태평양전쟁(1941)
 - → ① 하라다 케이이지: 「50년 전쟁」

- · 한일병합과 식민지 통치의 시작(계속)
 - : 1945년 일본의 패망과 동아시아 평화의 도래
 - : 최근의 「불온한」 동아시아 정세
 -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시도
 - →중국의 군사강국화와 재도약 시도
 - →러시아의 신 냉전체제 수립시도
 - →역사는 반복되는가?
- *강의자의 개인적 감상
 - : 전체적으로 무난한 다큐. But 근대일본에 대한 지나친 고평가가 산견됨
 - →러일전쟁은 과연 일본의 「승리」라고 단언할 수 있나? 개별 전투의 승리 가 전쟁의 승리인 것은 아님
 - →일본 내부의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간과(생략). 청일전쟁만큼 거국일치라 고는 보기 어려움
 - →러시아에서의 일본군 정보기관의 활약도 과대평가
 - →하라다의 「50년 전쟁」설에는 동의하기 어려움